

사설

인사권 남용 파행 복지행정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구청들로부터 불교계가 위탁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의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행정당국의 인사권 남용 등 부당행위로 복지행정이 비틀거리고 있다. 위탁운영권을 가진 불교계의 책임감과 인사부족으로 파행운영되는 경우도 돌출해 그 대책이 시급히 요망된다.

동작구청은 재단법인 한국불교 태고원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분당복지관에 퇴직공무원 운영으로 임명하기 위해 재계약에 미뤄오고 있다. 여처구니없는 인사권남용 사례이다.

관악구청은 지난 10월 관악청소년회관의 위탁운영권을 정찰에 있어서 청소년수련시설에 경험이 전혀없는 사립법인 '온터두레회'를 선정함으로써 선정자격을 남용했다는 서울시의 시정정보를 받은바 있다.

한편 이번에는 이러한 시정정보까지 냈던 서울시가 스스로 부당한 행정조치를 자행하여 불교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불교사회복지회가 지난 6월부터 위탁운영하던 가양 종합복지관에 대한 위탁운영권 반납조치와 함께 새 위탁법인 모집 공고를 일간지에 게재한 '재위탁'이라는 행정조치를 일으킨 적이 있으나 이를 곧바로 시정하여 복지관운영에 정상화를 기한 상태이다. 그런데 현재 위탁운영자에게 사전통보 없이 새 위탁법인 모집공고를 낸 것은 명백한 일관 행정조치임에 틀림이 없다.

이러한 일련의 복지행정의 파행성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권위주의적 폐쇄적 관료주의라는 군사문화적 폐습이 아직도 남아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국민의 심부름꾼이며 마음이라는 공무원의 공복의식은 간 곳 없고 오직 행정권의 따른 횡포가 도처에서 발견될 뿐이다.

지금 우리는 드라마같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으로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받고 있다. 군사문화를 하루속히 청산하고 문명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큰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

열린 마당

사찰 종토세

종토세·토초세로 사찰에 비상이 걸렸다. 교계는 종토세 면제를 관련법규의 개정을 거세게 촉구하고 있으나 최근 내무부는 김대통령의 대선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비영리법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자당 역시 세율을 대폭 낮추

는 당정안을 마련했으나 교계는 세율인하보다도 사찰토지에 대한 근본인식을 달리해 합리적 조세행정을 펴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사찰 종토세·토초세에 대한 현황과 교계의 대응방향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현응 (조계종 기획실장)



조세는 모두에 대하여 평등하게 부과되어야 하므로 종교 활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조세에 대해 비과세를 주장할 수 없었으나 조세 제도가 합리성을 상실하였다면 마땅히 시정

과 철회를 주장해야 한다. 전통사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는 문제가 있다. 전통사찰의 경우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교객의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실이 많다. 그러나 전통사찰의 부동산은 전통사찰의 경내지에 해당하며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인 '종교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전통사찰의 경내지는 민족의 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을 유지 보존하고 종교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이고, 그 처분에 있어서는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등 공공성과 공공성을 가지므로 경내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는 옳지 않다. 토지초과이익세는 토지의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 가격이 상승된 경우 그 상승분부에 대하여 고율의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그런데 토지 가격 상승은 토지의 교환가치를 높이지만 사용가치에는 별다른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 토지 거래가 없다면 지가 상승은 잠재적 수익가능성일 뿐 현실화되지 않은 가상이익이다. 가상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면 토지 거래를 하지 않는 사람은 부과된 세금 만큼의 손해를 보는 것이며 토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조세 제도가 오히려 순수한 토지 사용자의 토지 처분을 용이하게 되는 역기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토초세는 종단뿐만 아니라 국민적 입장에서도 수용할 수 없는 제도로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전통사찰 부동산 '경내지' 인정돼야 가상이익에 과세 합리성상실 처사

일부 위험 관정을 받은 바 있고 나머지 부동산도 위험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종단에서는 전통사찰에 대한 종합토지세와 토초세의 면제를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한편 종단 내부로 볼 때는 시내에 있는 유흥지를 사회복지시설 또는 종교 용도의 건물을 짓거나 공익 시설을 유치하는 등 유흥지 활용 방안과 종단 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계 종토세·토초세 현황

조계종의 최고 어른인 종정 스님까지 종토세 면제문제를 언급할 정도로 사찰의 종토세·토초세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조계종에서 잠정 집계하고 있는 종토세 부과액은 년 5억여원 정도. 지금까지 누적돼온 토지관련세금은 총 80억원 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조계종에서는

을 (농지 임야는 0.1%) 종토세를 분리 과세하고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시책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교계는 세율의 대폭 감이라는 이번 당정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분위기다. 전통사찰의 토지는, 토지의 투기를 막기 위해 만든 종토세나 토초세의 과세 목적과는 별개라는 입장에서, 1960년 이전

전국사찰 행정소송·압류경매 등 누적세 '몸살' 과세자료 정부제출 개정 요청...강력 대응키로

현황파악을 위해 종토·토초세 부과현황 자료를 보고받고 있다. 이에 따르면 월정사 2억 2천만원, 고운사 2천4 만원, 신흥사 1억5천4백만원 등이다. 통도사가 누진액까지 3억6 천4백여만원, 법어사 7억1천6 백여만원. 통도사는 양산음에 4월지가 가압류상태에 있고 산하 말사인 울산 일봉사의

로라도 납부할 수 밖에 없지만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신흥사 역시 지난 10월 속초시에 이의 신청을 냈다. 한편 내무부가 다른 비영리법인 단체들과의 형평성을 들어 종교단체토지 전면 비과세에 반대입장을 밝힌 가운데 민자당은 내년부터 0.3% 단율세

시론 새시대 여는 '천재일우' 삼자

근대국가를 지향한지 50여년, 물량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 세계 10위를 뺄도는 교역량을 자랑하듯이 절대빈곤의 시절이 언제였는가 할 정도로 우리는 풍요의 포만감에 젖어있는 것이다. 하지만 의식의 저변에는 여전히 '조선시대의 마음'이 깔려있다.

그릇된 마음속 신화개기

지난 전제군주시대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과 도덕성을 갖춘 절대적 인격체라는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들에게 대통령은 군주요 스스로는 신민이라는 착각이 그럴듯한 사실로 포장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토양 속에서 권력을 잡지 위탁 받은 대통령이 절대성과 영속성의 환상을 펼쳐버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도 모른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역사 속에 명명했던 역대 대통령의 불행한 최후는 신화와 현실간의 괴리와 충돌의 산물이었으며 우리 스스로의 속죄양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노태우 파문은 어렵사리 명맥을 유지하던 신화의 완전체해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구시대와 종말과 신시대의 출현을 합 의하는 권력이동의 전기를 마련한 천재일우의 기회로 다가 온 것이다.



공성진 <한양대 교수·한백연구재단 소장>

자금 세계는 21세기 눈을 앞에 두고 시대적 격변기에 휘말려 있다. 제3의 물결이나 후천개벽의 신질서가 시각각 신인류의 등장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인간은 신화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의식이 충만하여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 그리고 뇌화부동의 폭풍같은 열정이 아니라 평상심의 냉엄함을 요구하는 것이다.

신화가 벗겨진 그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은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우리 각자의 모습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노태우씨나 다른 정치도자들이 보통사람과 다름없다는 위대한 발견을 위해 건국이후 지난 50년의 세월, 이 사회는 정신적으로 어지러이 표류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노태우 파문의 여파가 정치권에만 머무르지는 않을 것이다. 학계, 종교계, 경제계를 비롯한 사회 제반 부문에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그릇된 신화가 이일을 계기로 일파만파 그 파열음을 내게될 것이 자명하다. 그 깨어짐을 두려워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음에 아쉬워해야 한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소명은 광명의 넓은 각질속에 안주하기 보다는 소용돌이 가운데서 새로운 지평의 구축을 도모하는 것이다. 노태우씨가 그 불길을 지킨다.

현대만평



바람타고 살며시...

'94, '95년에 이어 '96년에도 성도절 기념 대법회를 부다가야에서

서울 델리 대한항공 전세기 운항

1차 '96. 1. 24~2. 3(10박 11일)
2차 '96. 2. 2~2. 12(10박 11일)

인·도·전·세·기·성·지·순·례·일·정 ₩1,420,000

| | | | | | |
|------|----|-------|------|----|-------|
| 1/24 | 1 | 서울 | 1/30 | 7 | 쿠시나기르 |
| 2/2 | 2 | 델리 | 2/8 | 8 | 말람푸르 |
| 1/25 | 3 | 말라바드 | 1/31 | 9 | 말람푸르 |
| 2/3 | 4 | 바리나시 | 2/9 | 10 | 델리 |
| 1/26 | 5 | 부다가야 | 2/1 | 11 | 델리 |
| 2/4 | 6 | 부다가야 | 2/10 | 12 | 델리 |
| 1/27 | 7 | 부다가야 | 2/2 | 13 | 델리 |
| 2/5 | 8 | 부다가야 | 2/11 | 14 | 델리 |
| 1/28 | 9 | 부다가야 | 2/3 | 15 | 델리 |
| 2/6 | 10 | 파트나 | 2/12 | 16 | 서울 |
| 1/29 | 11 | 파트나 | | | |
| 2/7 | 12 | 쿠시나기르 | | | |

신심으로 성지를 순례하면 천상계에 환생하리라. 부처님 말씀 중에서

부처님의 향기가 서린 땅 - 그 위대한 성지를 순례하고 부다가야 마하보디 대탑전에서 성도절 특별법회에 참가하는 감격과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후원: BBS 불교방송 인도관광성 대한항공

50년 미려한 경유는 - 예약 726-5750 상담 726-5771~7 (입장명/입장/입장)